



## 그림책은 잔소리 없는 교육

《그림책을 보고 크는 아이들》 펴낸 이상금씨

세상의 모든 부모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놀 것에 해로운 것이 들어 있다면 한미음으로 분노하고, 어떤 범죄행위보다도 파렴치한 일로 생각한다. 그런데 책에 있어서만큼은 의외로 관대하다.

“그림책은 단순히 ‘그림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인간문화의 총화지요. 어떤 책보다도 아름답고, 견고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지난 40년간 이화여대에서 유아교육을 가르쳐온 이상금 박사(68)는 그림책이 가지는 무한한 가능성과 책임을 《그림책을 보고 크는 아이들》(사계절)에 담았다. 연구경험뿐 아니라 유치원에서 일하는 제자와 그들을 통해 축적한 간접경험도 한데 녹여 있다.

“90년 초에 일본의 유명한 후쿠이칸출판사의 마쓰이 다다시 회장이 쓴 그림책에 대한 책 두 권을 번역했는데, 독자들로부터 질문과 편지를 많이 받았습시다.”

요구에 비해 그동안 변변한 책 한 권이 없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그림책이 무엇이고, 세계적인 경향은 어떻게 흘러왔으며, 현황이 어떤지를 개괄적으로 소개할 책을 구상했다. 한글때기나 숫자공부로 끝나는 유아교육의 관행도 책 출간의 견인차가 되었다.

그림책은 의도적 교육이나 잔소리가 배제된 교육매체로 다양한 인간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동생을 시샘하는 아이에게는 《피터의 의자》(시공사)나 《순이와 어린 동생》(한림출판사)을 읽어주는 것이 어떤

꾸깃음이나 타이름보다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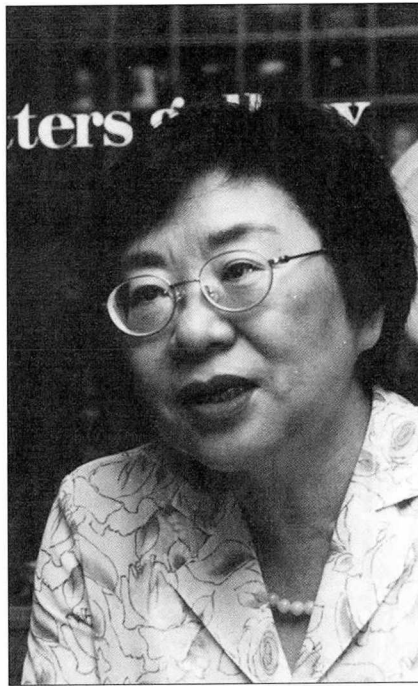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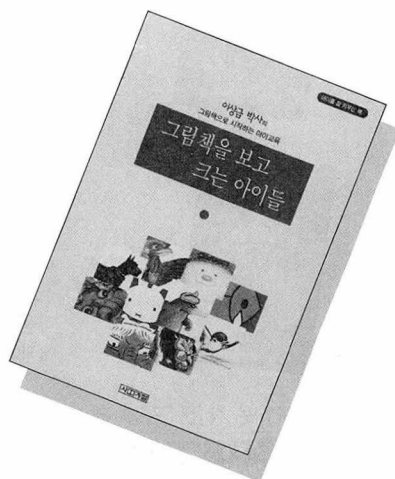
“아이 키우기는 공식대로 되는 음식만들기가 아니라 수에 따라 달라지는 장기두기와 같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의 특성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는 뜻. 육석을 가릴 줄 아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지 소개된 책을 절대화해서는 안된다. 우리 그림책을 많이 소개하지 못해 아쉽다는 이상금 박사는 우리 그림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또다른 책을 준비하고 있다.

학자이면서 탁월한 동화작가이기도 한 그는 자신의 동화 〈반쪽의 고향〉이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내 작가 가운데 좋은 그림을 그려줄 사람이 많이 생겨 그들과 함께 그림책을 써 보고 싶다는 욕심도 가지고 있다.

“제정적 뒷받침만 이뤄진다면 그동안의 경험을 쏟아 유아교육 상담, 놀이방, 도서관 등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유아교육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아들 셋이 모두 늦장가를 들어 직계 손자는 없지만 그림책에 관심을 가진 덕분에 친척 아이들에게는 이야기 보따리 할머니로 인기가 높다. — 이현주 기자



## 서정적 선율의 언어

《음악의 숲에서》 펴낸 유혜자씨

《트로이메라의 꿈》, 바하의 〈G선상의 아리아〉 등을 아침저녁으로 들려줬습니다. 전쟁의 쓰라림과 상처에 울려퍼지던 그 음악들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여고시절 음악가를 동경했지만 꿈으로 접었다. 대학시절 종로의 르네상스 등 음악감상실을 찾거나 당시 피아노가 많이 울리던 가회동길을 일부러 걸으며 애뜻한 마음을 달래기도 했다. 67년 방송국에 입사해 지금까지 교양프로그램을 맡아오면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세월의 옆모습》 등의 에세이를 펴내기도 했다. 수필가로서 현대수필문학상·한국문학상 등을 받았고, 오는 9월에는 방송인으로서의 영예도 얻는다. 〈사랑이 있는 곳에〉 프로그램으로 제25회 ‘한국방송대상’ 중 라디오PD상을 수상한다.

“한때는 시인 지망생이기도 했지만 이젠 수필가로 만족합니다. 수필은 삶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하므로 문학적 재능이 중요한 시나 소설보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좋은 에세이를 쓰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책에서 서정적 선율의 언어를 만났다면 앞으로 더 넓은 세상의 진실로 빛은 아름다운 사색의 기록을 보게 될 것이다. — 박천홍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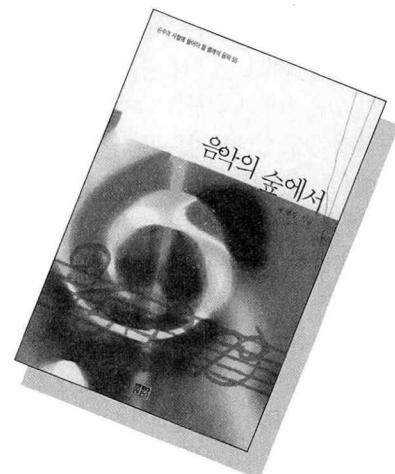
‘음악의 숲’은 의롭고 지친 영혼이 머무는 ‘소도’ 같은 곳이다. 사는 일이 쓸쓸하고 고단할 때 슬며시 짐을 부리고 상처를 닦아내는 정화의 공간이자 자기해방의 성소다. MBC라디오 프로듀서이자 수필가인 유혜자씨(58)는 최근 4년 동안 신성한 클래식 숲 속을 거닐었다. 거기서 건져올린 담백한 언어를 모아 음악에세이 《음악의 숲에서》(한울)를 펴냈다.

“방송국에서 일하면서도 일에 쫓겨 클래식 음악에 대한 열망만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4년 전부터 문학적 접근한 음악 에세이를 써보려고 생각했지요. 클래식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에피소드와 개인적 감상을 담았습니다.”

보로딘의 〈녹턴〉부터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까지 55곡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단상을 담은 이 책은 ‘순수의 시절’로 거슬러 오르는 등푸른 물고기떼의 빛살을 떠올린다. 슈만의 부인 클라라에 대한 브람스의 애뜻한 사랑이 승화된 〈교향곡 3번〉, 하이델베르크의 고성에서 싹뻗던 보로딘과 에카테리나의 사랑이 담긴 〈녹턴〉, 청력이 마비된 베토벤의 절망과 고뇌를 간직하고 있는 〈전원교향곡〉 등을 서정적 언어로 들려준다.

음이 아닌 글로 클래식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방송국 자료실의 음반 해설집, 음악가의 전기, 〈객석〉과 〈음악동아〉 등 전문잡지에서 자료를 수집했다. 작가와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유럽 여행체험도 소중한 글감이 되었다.

“초등학교 때 6·25를 겪었습니다. 고향은 폭격으로 거의 폐허가 되었지요. 그 당시 허물어진 극장 스피커에서 슈만의





## 대한민국 청년정신 담았어요

《혜초 스님 저희 왔어요》 펴낸  
노정렬씨

인도로 간 개그맨 노정렬(28)씨.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1년간 연수까지 받았지만 건강한 웃음을 선사하는 것으로 대민봉사를 하겠다며 개그맨이 된 그는 서울방송에서 대한민국 청년정신을 시험하기 위해 기획한 <세상체험 온몸으로 던져라>의 첫번째 수행자로 선정됐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1300년 전 혜초 스님의 노정을 완주하는 것. 그러나 앞에 놓여 있는 길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험난했다.

“처음 제안받았을 때는 솔직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항을 들어서는 순간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료 두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비행기표와 단돈 10만원, 8mm 비디오키메라가 전부였다. 난감했지만 스스로 선택했던 만큼 포기할 수는 없었다. 혜초처럼 20대 젊은이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도 컸다. 인도에 도착한 그는 '신왕오천축국전'을 기록한다는 기분으로 힘찬 발길을 내디뎠다. 그러나 부푼 꿈은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졌다. 처음 부딪친 문제는 신진대사를 해결하는 일.

원초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단순한 체험에서 벗어나 인도의 문화, 관습, 역사 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거리엔 구걸하는 사람들이 즐비하지만 한편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상존하는 인도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라마다 부조리한 모습은 있게 마련이지만 인도는 정도가 지나치더군요. 아무리 좋게 묘사를 해도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사라진 만큼 남은 여정은 힘들었다. 목구멍에 풀칠을 하기 위해 공원에서 재롱을 떨기도 하고 젖은 벽돌을 나르는 날뎀을 팔기도 했다. 3박4일 동안 줄곧 달리는 기차에서 혹은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서 느끼는 절대고독은 지친 심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기진맥진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청년정신을 저버릴 수 없었던 그는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파리에 도착하여 <왕오천축국전>을 대면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혜초 스님을 따라다니며 얻은 선물인 셈입니다.”

어떤 사회보다 경쟁이 치열한 연예계에 스스로 뛰어든 만큼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한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것도 좀더 갖춘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준비된 계산이다. 꿈은 시사토크쇼 진행자가 되는 것. 무일푼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89일간 7만km를 떠돌던 체험 순례기 《혜초 스님 저희 왔어요》(다락원)는 단단한 삶을 살아가려는 그의 오묘한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 오완전 기자



부도! 요즘 어려운 출판 유통 시장!

## 사장님! 힘내세요.



“  
포인트라인  
만나면  
즐겁습니다.  
”

출판미술전문회사 POINT LINE

불황을 이기려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포인트라인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풍부한 회사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일곱명과 우수 디자이너 다섯명 그리고 연구 기획하는 아이디어맨 세명으로 구성된 색다른 눈을 가진 그러한 회사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부에서는 종이입체 일러스트, 파스텔화, 지점토, 유화 및 기타의 기법으로 작업을 해왔으며, 픽처북, 표지, 카렌다, 카드, 각종 참고서, 교과서, 학습지, 스토리북 등 기타 어떤 일러스트도 소화해 내는 국내 유일의 팀입니다. 광고 디자인부는 사보편집 기획부터 단행본, 카달로그, 리플렛, 신문 잡지광고, 표지디자인, 브로슈어, 포스터 및 C.I.P등을 하고 있으며 연구기획실에서는 일반 단행본 기획, 유아도서 기획, 학습지 개발, 유치원 교재 개발까지 지난 15년간 항상 앞서가는 기획을 하려고 노력 해 왔습니다. 출판 미술 전문 집단 포인트라인은 앞으로 최고만을 고집 하며 한국 출판사의 자존심을 지키며 세계 여러나라 출판사와堂堂히 겨뤄 자랑스런 포인트라인이 되겠습니다. 지켜 보십시오!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7가 31한일빌딩3층  
전화 02)928-3491 ~3 • 팩스 02)926-2246